미얀마 '종교폭력 대책위' 발족… "늦었다"

7월 15일 정부 방침 발표에 외신 반응 '부정적'

극우불교단체의 지속된 이슬람 탄압에 대해 침묵해 온 미얀마 아웅 산 수치 외무장관이 취임 후 첫 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외신들은 냉소적 반응을 내놓았다.

아웅 산 수치 외무장관은 7월 15일(현지시각) '종교적 폭력사태를 다루는 특별대책위원회'를 발족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불교 전문지 'Lion's Roar'은 7월 21일(현지시각) "취임 100일을 맞은(7월 10일 기준) 아웅 산 수치 외무장관이 로힝야족에 대한 탄압을 막기 위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며 "이번 특별대책위 발족은 마바타에 대한 정부 차원의 합법적 경고다. 미얀마 정부는 여당 민주주의민족동맹(NLD) 소속 정치인사가 공개적으로 마바타를 비난했을 당시에도 그를 지지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Lion's Roar'은 '너무 늦은 처사'란 평가와 함께 특별대책위 역할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내놓았다.

'Lion's Roar'은 "아웅 산 수치가 이끄는 NLD는 1년 넘게 로힝야족을 방치해 오다, 무책임한 태도에 대한 국내외 여론의 비난이 들끓자 이러한 방침을 세웠다"며 "그동안 100만 명에 달하는 로힝야족이 피해를 고스란히 감당했다. 지난해에는 수천 명의 로힝야족이 박해를 피해 보트로 탈출을 시도하다 좌초된 사건도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Lion's Roar'은 "이 같은 문제가 전개된 동안 정부는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았다"며 "심지어 아 웅 산 수치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이슬람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것조차 금지했으며, 현재 미얀마 국회서 이슬람교도 정치인은 단 1명도 찾아볼 수 없다"고 전했다.



아웅 산 수치 외무장관(사진 왼쪽)은 지난 5월 22일(현지시각) 미국 국무장관 존 케리를 만나 '로힝야'란 표현을 자제할 것을 요청했으나, 존 케리(사진 오른쪽)는 완곡히 거절했다.
사진출처=Lion's Roar

미얀마, 종교폭력 대책위 발족
소수민족 '로힝야족' 탄압 대한
아웅 산 수치 취임 후 첫 조치
"1년 방치… 비난 들끓자 시행"

이러한 반응은 로힝야족 탄압을 1년 넘게 방치한 아웅 산 수치 및 NLD에 대한 불신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총선서 아웅 산 수치와 그가 이끄는 NLD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뒀다. 수치 외무장관은 미얀마 내의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며 노벨평화상까지 수상했던 터라,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탄압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 기대를 모았다. 이에 로힝야족 2만5000여명은 박해가 완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지난 3월 난민캠프로 돌아왔지만 시기상조였다.

오히려 수치 장관은 지난 5월 세계 정상들에 대해 '로힝야족'이란 표현을 자제할 것을 당부했다. '로힝야'는 아랍어로 '자비'란 뜻으로, 극우불교단체는 소수민족 이슬람교도들에 대해 로힝야란 명칭 대신 '이민족'이란 비하적 의미의 '벵갈리'로 불러왔다. 이에 수치 장관이 불교도인을 의식, 로힝야족에 대한 박해 문제를 외면했단 비판을 받았다.

달라이라마는 수차례 아웅 산 수치 정권에 대해 "도덕적으로 당연히 무슬림과 불교도 사이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압박했으며, 또한 지난 6월엔 제드 라드 알 후세인(Zeid Ra'ad Al Hussein) UN인권 고등 판무관이 미얀마 소수민족 무슬림에 대한 탄압을 '민족대학살'이라 표현한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당시 제드 라드 판무관은 "로힝야족은 국가로부터 국적을 박탈당해 자유와 안보를 심각히 위협받고 있다"며 "극우불교단체들의 탄압은 갈수록 늘어가며, 로힝야족을 비롯한 무슬림 12만 명은 강제노동과 성적 유린을 피해 난민 캠프에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밖에도 지난 7월 극우불교도들이 이슬람 사원을 테러하는 등 탄압 사건이 빈번히 발생했으며, 'Lion's Roar' 보도에 따르면 정부 주최 평화토론회(시일 미정)에도 로힝야족은 초대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의 무슬림 평화운동가는 'Lion's Roar'와 인터뷰서 "정부의 특별대책위 방침은 너무 늦게 시행됐고, 그 마저도 로힝야에 대한 탄압을 막기엔 미약하다"며 "시간이 지나면 수치 외무장관이 미얀마에 평화를 가져온 '민주주의의 횃불'일지, 아니면 오직 본인의 명성에만 치중한 인물일지 드러날 것"이라 평했다.

한편 극우불교단체 마바타의 입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정부가 특별대책위를 구성하며 마바타 테러행위를 제재하고 나선 가운데, 미얀마 승가회(Sangha Council)도 최근 발생한 마바타의 이슬람 테러행위에 대해 강력히 비난했다.

미얀마 승가회는 "마바타는 절대 불교단체가 아니다. 우리 승가회는 방종에 빠진 마바타의 범법 행위를 강하게 비난한다"고 밝혔다.

이에 마바타 대표 위라투 승려는 "수치 장관이 똑똑히 행동하지 않을 경우, 신발을 벗어 내리칠 것"이라 위협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印, 부디스트서킷 中·日 관광객 유치 나서

정부, 중국·일본 불자 대상 성지순례열차 운영 시도

"낙후·비위생적 환경 개선 시급"
관광지출 많은 국가 공략

인도 정부가 불교 성지순례 전용열차 '부디스트 서킷'을 중국 및 일본 불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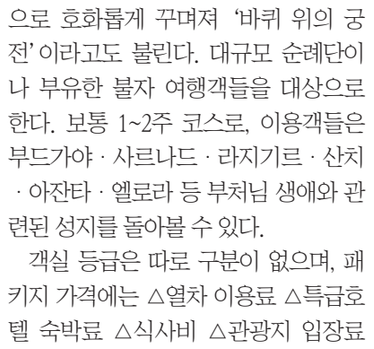
인도 언론 '더 힌두'는 7월 16일(현지시간) "산업자원부 및 교통부 장관이 중국·일본과 같은 불교도들이 많은 국가를 대상으로 '부디스트 서킷' 운영을 시도할 예정"이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인도 산업자원부(이하 산자부)는 관광객들의 방문을 늘리기 위해 복수입국이 가능하며 체류 기간을 연장하는 비자 허용을 검토하고 있다.

산자부 관계자는 "인도철도관광회사(Indian Railway Catering and Tourism Corporation, 이하 IRCTC)와 함께 중국과 일본의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불교성지순례열차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IRCTC는 인도 교통부 자회사로, 불교성지를 찾아오는 해외 관광객 및 순례객들을 위해 2006년 불교성지순례열차 첫 번째 노선을 개통했다. 또한 인도 뿐 아니라 부처님이 태어난 네팔에 연결되는 부디스트 서킷 노선 개통도 계획 중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외 관광객들의 편의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다. 낙후된 공항과 비위생적 환경, 또 와이파이 등 인터넷 시설이 미비한 점도 해결과제로 남아있다.

IRCTC관계자는 "많은 불교도들이 성지순례를 오지만, 낙후된 시설과 환경으로 인해 재방문을 유도하기 힘들다"며 "중국 및 일본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선 이런 환경적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인도 정부가 불교 성지순례 전용열차인 '부디스트 서킷'을 중국과 일본 불자들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할 방침이다.
사진출처=더힌두

마노차 IRCTC 운영위원장은 "세계 여행관광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전체인구는 해마다 215억 달러를 해외여행으로 지출한다. 이는 지난해 대비 53% 상승한 것"이라며 "인도는 중국인들에게 매혹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다. 하루 속히 인프라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디스트 서킷'은 화려한 장식으로 호화롭게 꾸며져 '바퀴 위의 궁전'이라고도 불린다. 대규모 순례단이나 부유한 불자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보통 1~2주 코스로, 이용객들은 부드가야·사르나드·라지기르·산치·아잔타·엘로라 등 부처님 생애와 관련된 성지를 돌아볼 수 있다.

객실 등급은 따로 구분이 없으며, 패키지 가격에는 △열차 이용료 △특급호텔 숙박료 △식사비 △관광지 입장료 등 포함돼 있다.

이보형 객원기자

불교국가 여행할 때 부처님 문신 'N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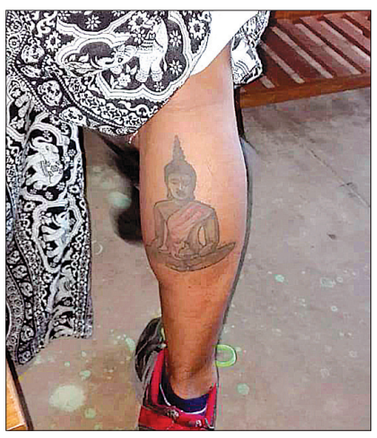
스페인 관광객, 문신때문에 미얀마서 추방위기

한 스페인 관광객이 다리에 새긴 부처님 문신 때문에 미얀마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AFP통신'에 따르면 7월 19일(현지시간) 스페인 관광객 케사르 헤르난데스는 부인과 미얀마 바간 지역을 여행하던 중 현지 승려의 신고로 구금됐다. 그의 오른쪽 종아리에 새겨진 부처님 문신이 '부적절한 행동'이란 이유였다.

이에 헤르난데스와 그의 부인은 바간서 추방된 뒤 400마일(약 630km) 떨어진 랑군 지역 구치소에 구류됐다. 미얀마 당국은 AFP에 "헤르난데스와 부인이 관광객으로서 수칙을 어겼기 때문에 태국 방콕으로 추방될 것"이라 밝힌 상태다.

아시아 남방불교 국가는 불교적 관습을 엄격하게 지키는 곳이 많다. 때문에 서구인들의 타투를 새기는 등 자유로운 행동이 문제로 불거지는 경우가 있다. 2014년 한 캐나다 교수도 부처님 문신을 몸에 새겨 미얀마서 추방됐으며, 같은 해 영국출신 간호사 또한 같은 이유로 스리랑카서 추방됐다.



한 스페인 관광객이 다리에 새긴 부처님 문신 때문에 미얀마에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
출처=더 스펙닷컴

미얀마 당국은 "미얀마서 하체 부분은 '부정한 부위'란 생각이 팽배하다"며 "이런 상황서 외국인이 다리에 석가모니 문신을 한 것은 불교도들에게 자칫 모욕적으로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아웅 산 윈 미얀마 종교문화부 장관은 헤르난데스 부부에게 추방 대신 '자율적 의사로 떠날 것'을 조언했다고 알려졌다.

아웅 산 윈 장관은 "우리는 그들을 추방할 이유가 없다"며 "단지 헤르난데스 부부가 종교적 모욕감을 느끼는 미얀마 사람들의 공격으로부터 안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보형 객원기자

빵 굽던 스님들, '딸기'로 나눔행

캐나다 스님들, 직접 재배 딸기로 푸드뱅크 지원

지난 5월 대형 산불 피해를 입은 지역민들을 위해 빵을 구워 기증한 캐나다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이 이번엔 '딸기'로 나눔행을 실천했다.

'CBCNews'에 따르면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은 캐나다 몬태규 시(市) 푸드 뱅크의 음식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소식을 접하고, 직접 재배한 딸기를 5달러에 팔아 푸드뱅크를 지원하기로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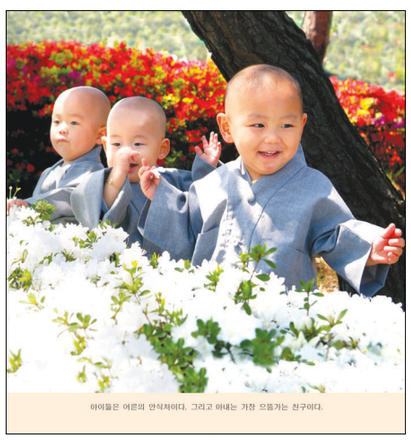
대각불교연구회 댄 주지 스님은 "우리는 지역 주민들의 친절 덕분에 수행에 전념할 수 있었다"며 "이제는 우리가 돌려줄 차례"라 밝혔다.

한편 '푸드 뱅크'는 개인 및 기업으로부터 식품을 기탁 받아 소외계층에 지원하는 식품지원 복지 서비스 단체다.



대각불교연구회 스님들은 직접 재배한 딸기를 5달러에 팔아 몬태규 시 푸드뱅크를 지원한다.
사진출처='CBCNews'

박아름 기자





12절(벽걸이형)달력
100부 이상 @ 1000 원
• 삼천부이상 @800원
• 규격 : 25.8cm × 26.5cm

한지달력 200부 이상 @ 1,800 원
• 정가 2,000원
• 규격 : 30cm × 63cm

수첩달력 200부 이상 @ 600 원
• 100부 @700원
• 규격 : 9.5cm × 13.4cm
• 매수:18장

탁상달력200부 이상 @ 1,800 원
• 정가 2,000원
• 규격 : 26cm × 19cm

미니달력 200부 이상 @ 450 원
• 100부 @500원
• 규격 : 8.9cm × 9.5cm
• 매수:16장



영가옷B형-남 정가 1,200원 영가옷B형-여



영가옷C형-남 정가 1,000원 영가옷C형-여



수자영가옷 정가 800원



동남영가옷 정가 900원 동녀영가옷



금강경탑다라니 정가 200원



영가천도다라니 정가 1,000원

동진기획·붓다쇼핑 ☎(051)515-8888
www.buddhashopping.com
TEL.(051)515-2988, 555-1087, 508-9377~8
※동진기획 붓다쇼핑에는 100여종의 서적, 900여종의 용품이 있습니다.
※불교용품카다록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주소를 알려주시면 보내드립니다.
[불교달력,서적,사경지,연등,염주,향,양초,다포,4.8용품,백중용품]